

중생과 부처에 돌아닌 불성

佛性은 모두가 갖춘 천진한 성품 말과 의식 끊어진 곳에서 드러나



초발심(初發心)에 일체 모든 공능이 갖춰져 있습니다. 중생과 부처가 돌아닌 불성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생은 법신(法身)이 드러나지 못해 원만한 행을 보이지 못할 뿐입니다. 초발심은 얼마나 근원적으로 깊이 발심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수행이전에 인격적으로 그릇을 갖추는 발심에 일생의 공부가 판가를 납니다. 소승과 대승은 이미 발심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발심이 견고하고 깊어야만 구경(究竟)에 불과(佛果)를 증득할 수 있습니다. '일체중생을 제도하기까지 이 마음을 쉬지 않겠다'는 약속이 초발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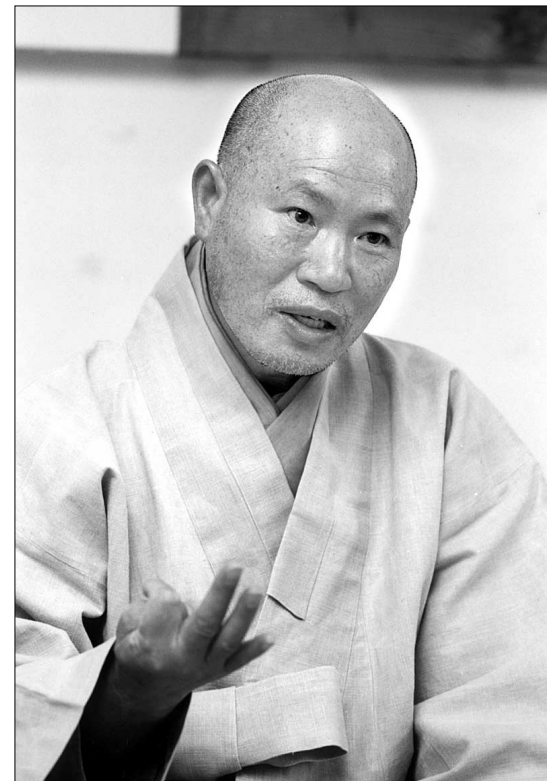
첫 발심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이미 부처라는 절대 확신을 갖는 여하에 따라 수행의 결과가 현격한 차이가 벌어집니다. 중생의 오랜 습은 본래마음을 드러나지 못하게 합니다. 지견(知見)과 믿음알이가 붙어있는 한 불심을 드러낼 순 없습니다. 불심이 연기독로(緣起獨露)되어야만 본심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습니다. 자기라는 사고의 주제와 객체가 분리되어 있는 한 본심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상(我相)을 여연 아공(我空)을 얻은 후, 마음 밖의 경계인 법(法)마저 여의어서 법공(法空)이 되어야만 공부를 마친 겁니다. 능(能)과 소(所)를 물뚫고 나와 남이 함께 없어지고, 없어진 것마저 없어진 구공(俱空)이 되어야만 중도실상(中道實相)이 드러납니다. 생명의 본래모습, 불지견(佛知見)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화두를 타파하더라도 근기에는 차별이 있어 깊이 들어가지 못해 구경각(究竟)에 제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정도의 해탈(解脫)에 만족하거나, 믿음알이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해오(解悟)에 머물고 맙니다. 증오(證悟)했다더라도 견성했다는 지견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근본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깨달음은 일상생활로 연결됩니다. 늘 깨달음의 연속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일상속에서 깨달음을 구현하셨는데, 그 분께서 깨닫지 않는 시공(時空)은 존재하지 않았습다. 불(佛)이란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마음 가는 곳이 없어진言語道斷 心行處滅' 곳 에서 드러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만족스럽게 이를 쓰셨지만, 제자들은 이를 충분히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말과 의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과 의식이 끊어진 자리에서 설법을 들는다면 법문을 듣는 중에도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보입(保任)'이란 말은 깨달음 자체는 이어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보살행이니, 선이니 그러한 생각들이 늘 이어져 가도록 마음으로써 '보호임지(保護任持)' 하는 것입니다. 즉 사고와 행위가 늘 일치하는 삶입니다. 조금도 각(覺)과 상(相)이 없어서, 화두를 들지 않아도 저절로 들려서 언제나 화두가 현전하는 경지인 '타성일편(打成一片)'이 되는 것입니다. 늘 마음과 행위가 놓치지 말고 지니도록 깊고 원만해야만 보입이 가능합니다.

보입(保任)이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평상심(平常心)'이란 말은 잘 알고 써야 합니다. 한량없이 변하고 있는 중생의 객진변뇌가 아닌, 상주불변하는 마음이 평상심인 것입니다. 평상심을 원만히 지닌 분들이 인격자입니다. 지견이 굳은 열사나 의사 같은 훌륭한 분들도 평상심을 가진 분들로 볼 수 있습니다. 평상심을 수지한다는 것은 진여심(眞如心)을 늘 지니는 것으로 자성된 만정정심, 즉 늘 생멸없는 부처님의 본래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늘 변치 않는 이 마음을 믿고 이해하여 생활속에 촛나던 일체고(一切苦)에서 벗어나 수 있습니다. 수행자는 자심사불(自心是佛), 즉 내가 부처라는 믿음을 내어야 합니다. 불·조사에게 의지하지 않고 본래 갖추고 있는 자증명(自證明)한 불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불교의 삼매는 한 곳에 마음을 몰두해서 삼매를 이루는 외도의 삼매와는 다릅니다. 일체의 집착을 여연 중도삼매(中道三昧)입니다. 중도는



◁소박한 일상속에서 늘 평상심을 잃지 않고 자재한 삶을 사는 정광스님은 "보편행으로 깨달음을 갈무리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상에도 결함이 없고 현실에도 결함이 없는 '이사무에 사사무애(理事無礙 事事無碍)'의 경지가 되어야만 증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언어와 마음, 말과 사고가 깊은 일상속에 타성일편이 돼야 합니다. 불, 조사, 중생 모두 한마음으로 일체가 포용돼야 합니다.

중도는 진공(眞空)과 묘유(妙有), 둘 다이기도 하고 둘 다를 부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정(定)과 관(觀), 지(止)와 관(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과 해는 둘이 아니어서 정 가운데 해가 드러나고, 해 가운데 정이 들어있어 원래 나눠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성성(惺惺: 깨어있음)과 적적(寂寂: 고요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면세계의 성성함을 통해 지혜를 얻고, 이를 통해 망상을 제거함으로써 적적하게 경계에 대처하는 것입니다. 성성과 적적이 상부상조해야만 병이 없는 것입니다.

깨달음이란 변견(變見: 죽으면 완전히 없어진다)은 斷見과 죽더라도 영원불

평상심은 부처님 본래마음 유지하는 것

차자석 박사의

불교공부 713



자비

종교와 철학의 차이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은 불교를 종교가 아닌 철학이라 말하기도 한다. 혹자는 불교를 철학과 같은 종교로 생각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불교는 종교이기도 하고 철학이기도 한 것인가? 아니면 철학적 요소가 강한 종교라 보아야 하는가?

각자의 시각에 따라 달리 말할 수 있지만 우선 철학과 종교의 차이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철학이란 논리를 생명으로 한다. 그래서 명제나 논제에 대한 증명을 논리라는 도구로 해결한다. 때문에 논리적이 아닌 것, 논리에 의해 증명되지 않는 것은 철학이라 말할 수 없다. 반면에 종교는 논리 보다는 실천을 중시한다. 여기서 실천이란 용어는 종교적 영성 수련과 사회적 실천을 동시에 포괄하는 개념이다.

불교를 철학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느 정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불교를 철학 그 자체로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넌센스가 아닐 수 없다. 한마디로 불교는 철학이 아니라 종교라고 말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초논리적인 요소도 있으며, 그러한 초논리를 이용하여 사회적 실천과 종교

삶이 가장 거룩한 삶이냐(150송).'
조건이 없다는 것은 기실 실천하기 어려운 일이다. 인간이란 감정의 동물인 만큼 매사를 감정 따라 판단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무조건이란 것은 감정적인 판단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다를 아니다. 논리적으로는 분명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실생활 속에서 무조건적으로 자비를 실천하는 일은 힘든 만큼 기쁨을 동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러한 삶은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거룩한 삶인 만큼 세속적인 회생을 전제해야 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자비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를 두 가지 경전을 인용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땅은 깨끗한 것도 받아들이고 더러운 툇과 오줌도 받아들인다. 그러나 땅은 '이것은 깨끗하다. 이것은 더럽다'고 분별하여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는다.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는 사람은 그 마음을 땅과 같이 해야 하리라. 나쁜 것을 받거나 좋은 것을 받더라도 조금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을 내지 말고 오직 사랑하고 가엾이 여기는 마음으로 중생을 대해야 한다."(<중일아함경>제38)

"중생은 사랑하는 생각을 따라/ 사랑의 마음

종교적 실천의 핵심키워드 중 하나 好惡불문 조건없이 사랑하는 마음

적 덕성의 함양을 유도한다.

불교라는 종교가 지니고 있는 종교적 실천 중에서 가장 강조되는 핵심 키워드 중의 하나가 자비라는 용어이다. 자비의 실천을 통해 불교가 추구하는 사회 건설을 획책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불교의 자비는 조건을 따지지 말라고 전제한다. 조건을 따지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자비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가장 오래된 초기 경전 중의 하나인 <숫타니파타>에는 다음과 같이 자비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연약한 것이나 강한 것이나, 젊거나 길거나, 큰 것이거나 작은 것이거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가까이 있는 것이나 멀리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났거나 갖춰 태어나려하는 것이거나, 살아 있는 모든 것들이여, 다 행복하 여라(145~146송). 여기가 위험을 무릅쓰고 자식을 지키듯 모든 살아 있는 것에 대해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묘아라(148송). 위이거나 아래이거나 모든 생명에게 방해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적의를 품지 말고, 선행을 하고 묘아라 (149송). 서 있을 때나 걸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눈을 뜨고 있는 한 자비로운 마음으로 선행을 쌓기에 최선을 다하라. 이러한

속에 갇혀버리나니/ 사랑을 바르게 알지 못하므로/ 괴로움을 갖가지로 준비하느니라. 만일 사랑을 바르게 알면/ 거기에 애착은 생기지 않으니/ 사랑에는 나와 남이 없거늘/ 남이만 말을 어찌 하라. 사랑에서 나고 못남을 보면/ 한없이 다툼이 생기나니/ 보고 매달려 애착하지 않으면 / 위와 아래가 없어지느니라."(<집아함경>제38)

<중일아함경>에서는 대지처럼 일체의 중생을 포용하는 자비를 역설하고 있다. 무한한 연기의 세계를 관찰한다면 배척할 대상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게 된다. 아니 대지처럼 생명체를 무조건 사랑하는 마음, 진정한 자비의 실천은 그러한 사랑이다. 이것을 아가페적 사랑이라 말한다.

<집아함경>에서는 사랑하는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닫힐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이기적이고 선택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우리들은 예로 스라 표현한다. 감정에 충실하며, 너와 나를 구분해서 사랑하는 것이기에 오히려 기쁨 보다는 번뇌를 야기하는 것이다.

<본지 삼입은설위원 · 불교학 박사>

승복 법복 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 고급 모직 : 특징 - 울 50% 플리스셀 50%**
적상, 바지 150,000~180,000
동방, 바지 180,000~210,000
두루막 150,000~180,000
- 2. 무 명 (먹물 염색)**
적상, 바지 180,000 동방, 바지 220,000
두루막 180,000
- 3. 무명, 면 : 면 100%(먹물 염색)**
적상, 바지 140,000 동방, 바지 170,000
두루막 140,000
- 4. 솜 없는 누비(먹물 염색)**
적상, 바지 170,000 동방, 바지 200,000
두루막 170,000
- 5. 면 목화솜 누비(먹물 염색)**
적상, 바지 230,000 동방, 바지 270,000
두루막 210,000
- 6. 골 덴 : 면 100%** 적상, 바지 180,000
- 7. 정삼 고급모직** 220,000~250,000
대가사 150,000 반가사 70,000
법복 보복 60,000~80,000

◆ 유사제품과 비교해 보십시오 ◆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치 : 지어길 중앙로역 3번출구앞(동아백화점 방방 입구)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승복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011-809-2398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포정동 6-11 (지역판매점 모집)

고혈압·순환기질환

진정한 해답은 무엇입니까!
※ 혈관속에 만병이 있습니다※

- ◆ 혈전(血栓)이란
혈관내에 생기는 단백질의 피브린을 주성분으로 형성된 젤(gel) 상태의 혈액 덩어리로서 혈액의 흐름을 막아시키고, 각종 질병(심인병)을 유발시킴.
- ◆ 혈전성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중풍), 노인성치매, 당뇨성장막폐쇄증, 손발저림, 눈이 침침함 등
- ◆ 혈전용해요소 (낫토키나제)
대두의 발효중 미생물(납두균)이 만들어 내는 신기능성 특수 효소물질(Nattokinase)
(강력한 혈전용해 능력으로 순환기계질환의 예방과 개선에 탁월한 기능성 효소물질)
- ◆ 국제혈전용해학회
에 발표(1996년), 분자구조식이 규명되어 그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됨(일본 생물관학 연구소)

◆ 늘어나는 평균수명과 늘어나는 순환기질환
◆ 식생활 습관의 서구화 가공식품, 동물성지방 스트레스, 운동부족 환경오염

NS3-6310(030mg)/240(240)개입

대건메디칼 053-744-2502
(약식행심) 011-811-3938
(안내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의 저자 無一 우학스님

완벽한 참선법

위빠사나와 간화선의 만남!
禪觀雙修(선관쌍수)

글: 그림·사진 無一 우학스님
현재 영남대학교.관음사에서 최후의 소임을 맡고 있으며 저서로는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금강경 핵심경의, 길손여행, 단사대사 등 다수가 있다.

◆ 돌출 중인인연

(053)475-3707 buddhabook@hanmail.net

당신에게 행운을

행운의 양말, 방석, 속옷, 손수건, 넥타이, 지갑
차량안전운행 방석, 부부화합의 이불,
가정화목의 카펫, 맑은정신의 베개
학업자에게 지혜의 선물로...
사업자에게 성취의 선물로...
수험생에게 합격의 선물로...
부모님에게 효도의 선물로...
어려운이에게 희망의 선물로...
모든이에게 행운의 선물로...

수험시험 합격기원 패션출시
전국지사 대리점

www.bu.juk.shop.com

천릉정사 복지원 문의 : 053)986-1355, 017-533-1356
Fax 053)986-1356 대구 북로동 매장 053)986-1354
부산 · 경남총판 051)441-1670

초발심에 모든 공능 갖춰져

정광스님

(봉암사 태고선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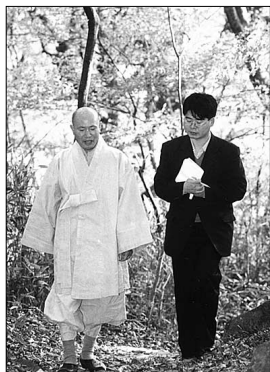
기자가 본 정광스님

조계종 종립선원담계 봄, 가을 반결제까지 한 철도 쉬지 않는 사시 사철 안거의 가풍을 이어오고 있는 봉암사 태고선원, '객이 주인처럼, 주인이 객처럼 사는 곳'인 봉암사의 원용살림을 이끌고 있는 정광스님은 봉암사의 터줏대감이지만 전혀 그런 상(相)을 내지 않는다. 오히려 결제 철이면 환갑이 넘은 세수(61)로 20~30대의 젊은 수좌들과 함께 하루 14시간 가행정진하며 순선수법하는 구참 수좌의 표본이다.

1942년 11월 27일 경남 창원에서 출생한 스님은 61년 장제사에서 대월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이후 제방 선원에서 안거를 지낸 후 20여년전부터 봉암사에 주석하며 용맹정진하고 있다. 젊은 시절부터 선을 좋아했다는 정광스님은 <금강경>과 <임제록>을 읽고 출가를 결심, 금생에 '직지인심 견성성불' 하리라는 원을 세웠다. 해병대 제대이후 3년동안 잡 안거고 공부하기 시작한 후 <임제록>의 활발한 무위

하루 14시간 정진-구참수좌의 표본 구산선문 연구...한국禪 독창성 알려

진인(眞人)의 경계에 대해 철저 확신을 얻기 시작했으며, 어느 순간 확연히 그 경지를 알게 되어, 일상생활 속에서도 자신있게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기자와 함께 봉암사 동암으로 오르는 정광스님.

10년전 스님은 <지증대사 비경소고>(경서원)를 펴내 당시, 해이해진 선종과 흐트러진 종지를 바로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 스님은 이 책에서 봉암사에 현존하는 지증대사탑비, 정진대사탑비를 중심으로 한 구산선문 연구를 통해 한국 선의 독창성을 널리 알렸다.

멸하다는 常見에 치우친 견해와 중도마저 모두 끊어진 상태입니다. 중도를 뛰어넘고 변견 속에서 중도를 드러내야만 남과 같이 고락을 같이하며 고통을 줄 수 있는 보현행(보행)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중도란 어디있느냐. 윤회 속에서 고행을 조금도 느끼지 않는 경지입니다. 그래서 못나고 깨달은 자는 오히려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중도의 실제적인 모습은 보현행을 실천하

살아 움직이는 의심돼야 참다운 화두

발심 견고하고 깊어야만 불과증득 가능 명심하길

는 것입니다. 불·보살은 불법을 현실적으로 쓰는 사람입니다. 중생심도 불심도 다 항복받아야 합니다. <화엄경>에서 깨달음 끝에 보현행의 수승함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 수행과정에서 보현행을 갖추지 못하면 불법에 탐착되어 중생의 바다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소송에 머물러 원만한 불과를 증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에 어둡지 않은 채 이류중행(異類中行) : 중생과 함께 생활하며 교화에 힘쓰는 일하여 무공토록 계, 소, 말이 되어 보살행을 실천하더라도 조금도 갈등을 느끼지 않는 것이 보살입니다. 중생과 이류중행하는 제일가는 보현행을 실천하는 문수, 보현보살은 그래서 본존(本尊)의 스승입니다. 패지 중에 보현보살이 있다거나, 날뽀팔이 지게꾼이 도인이었다는 고사는 중생이 다 부처임을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일체의 차별을 벗어난 타성일원이 되면 말과 글, 행위가 선(善)에 일치합니다. 교와 선, 율, 이런 것도 분별이 안됩니다. 열반과 독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본 마음은 일체를 다 수용하지만, 나타난 모양에 따라가면 등자와 분별, 시비가 일체 됨을 유념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일체 성인의 말씀과 팔만장경의 도리로는 미칠 수 없었기에, 새로운 한마디로 드러낸 것이 화두입니다. 화두는 주관과 객관, 능과 소를 뛰어넘어 본래의 뜻을 잘 드러내는 관법입니다. 관하는 사람도 관하는 법도 뛰어넘어 백지상태에서 출발하도록 합니다.

화두법이 처음엔 어려워도 위빠사나처럼 전세계에 알려지면 갈 수록 이해와 찬탄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들의 머리가 좋아져서 논리적인 것에 한말을 느낍니다. 인간의 사고와 설명으로는 본래면목을 드러낼 수 없기에, 말로 미칠 수 없는 무심처(無心處)를 화두로 접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 당시엔 관법만으로도 원만한 수행이 가능했지만, 시대가 변해 사람들의 지혜가 높아지고 신심이 약해지다 보니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사스님들이 새로 정립한 것이 화두선입니다.

화두의 근원이 되는 '이렇고'라는 것은 남악회양 선사가 육조스님을 찾아 갔을 때,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하는데서 발단이 된 것입니다. 남악회양 선사 처럼 경론에 밝은 공승이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하는데, 딱 막혀서 단간을 고생하며 깊이 공부한 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렇고'를 드는 데는 출·재가의 구별이 없습니다. 화두 들려고 따로 시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고'를 드는 순간, 전후가 재단되어 과거와 미래는 사라집니다.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현재의 '나'라는 중심점마저 끊어버리면 태허공(太虛空)처럼 텅 비어져 일체가 흔들(顛倒)됩니다. 당장 화두일념에 들면 본래마음으로 들어가 자기 본래모습과 대좌합니다. '불생불멸하는 참된 성품, 나의 진심이 무엇인가' 하고 늘 잠깐이라도 화두를 들면 수행 공덕이 있음은 물론 거친 현실을 극복하는데도 남모르게 이익이 있을 겁니다. 갑자기 담긴 어려움이나 불행 등에도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는 일상 속에서 화두를 쟁기으로써 저절로 대응능력이 생깁니다. 이것은 불생불멸하는 텅 빈 마음에서 나오는 화두의 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 몰록 있고 자기 자신이 완전히 객관화 될 때 거기에서 비참한 해결책이 나옵니다.

불상은 과거, 현재, 미래 삼세의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지만 쓰지 못할 뿐입니다. 과거에 집착하고 미래를 추측하며 현재를 머물지 않는 무주됨(無住)을 알아야 합니다. 바깥의 상인(物相), 마음의 상인(心相)이 붙다 공작하고, 공작하다는 그것마저 없이 일체상에 무관하게 보현행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정리=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성전스님의 스님이야기

도법 스님

바람이 차다. 바람이 찬 것 보다 세상이 더욱 차다. 따뜻한 동지를 찾아 걸음을 옮기고 싶다. 실상사를 바라보면 따뜻함이 새어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한국 불교의 생명의 소리가 느껴지는 곳이기도 하다.

도법 스님은 작고 왜소하다. 그러나 스님의 가슴에는 삼계 모든 중생의 절망과 비애와 희망이 다 들어 있다. 그는 아파한다. 한국 불교의 현실에 대해서 그리고 생명을 파고드는 현실과 물질 문명에 대해서, 그의 사고와 행보는 그 아픔에 의해 추동된다. 그래서 그의 행보에서는 진실을 발견할 수 있다. 아, 진실! 그것은 얼마나 만나기 어려운 것인가. 얼마나 그러오던 것이었던가.

도법 스님은 지금 1000일 기도를 하고 있다. 그것은 짧은 시간이 아니다.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인한 민족의 아픔을 자기화 하고 그 아픔을 치유하고자 하는 발원이 없다면 불가능한 것인 지도 모른다. 마치 부처님이 중생에 대한 끊임없

스님의 기도는 스님의 말대로 존재와 전체의 올바른 관계의 실천이다. 세계가 바로 자신의 생명이며 자신의 모습이 세계의 모습이라는 동체대비의 인식을 스님에게서는 엿볼 수가 있다. 그래서 스님의 기도는 이 세계를 향한 나눔이 너와 나라는 대립이 끊어진 무심의 실천인 것이다.

한 수행자가 진실을 담보해 일생을 살아가기란 쉽지가 않다. 끊임없이 탐심하지 않으면 그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 저녁 어둠이 내리듯 세상이 혼탁해 가듯 우리의 마음도 또한 그렇게 쉽게 무너져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법 스님에게서는 오명의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다. 그의 결에서는 거짓의 자취 또한 찾을 수가 없다. 그는 아파하지만 쓰러지지 않고 길을 가는 사람으로 내게는 기억되고 있다. 외롭지만 쉬지 않고 길을 가는 것은 스님에게 구세대비교(世大比)의 원력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스님은 작은 몸집으로 서서 기도한다. 지리산의 상처 받은 영가와 생명평화를 위하여. 마침내 천일기도의 회향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나는 스님의 기도가 스님의 일생을 통해서 계속되리라는 것을 안다. 스님의 기도에 반향이 있던 모든 스님은 일생을 기도할 것이다. 그것이 때 순간 발심하는 수행자의 자세이기 때문이다.

지리산 영가 위해 1천일 기도중

소탈·진지...함께 이해하고 고뇌

어쩌면 한번 출가 했다고 출가의 의미가 완성된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매순간 출가의 정신을 잃지 않고 발심할 수 있을 때 그리하여 마침내 '출가'를 삶의 어느 순간에서도 실현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출가 수행자가 될 것이다. 도법 스님은 그렇게 살고자 하는 출가 수행자이다. 끊임없이 발심하는 수행자, 그리하여 가슴에 끊임없이 연민이 고이는 수행자이기도 그는 삶의 어느 자리에서도 구세대비의 원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스님은 소탈하고 진지하다. 권위를 내세우기 보다는 함께 이해하고자 하고 사랑이 있기에 스님은 한계 고뇌하고자 한다. 욕심도 야망도 그에 게는 없다. 다만 길에 대한 꺼지지 않는 사랑과 열러만이 있을 뿐이다. 11월 15일 스님은 천일기도를 회향하고 평화결사를 시작한다. 어두운 세상에 작은 빛 하나 놓고자 했던 스님의 회향식에 나도 가서 작은 불 하나 들고 싶다. 그리고 말하고 싶다. 스님의 큰 원력을 아낌없이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 종단과 사회에는 많다는 소식을.

성전(僧堂) 스님은 태안사로 출가해 해인사 승가대학을 졸업했다. 월간 <해인>과 <선우도량> 편집장, 서울 육천암 주지를 지냈다. 현재 서산 무석사에 주석하고 있으며 월간 <해인> 편집위원을 맡고 있다.



그림·문병성

는 연민으로 출가했듯이 스님은 지리산을 떠도는 영가들에 대한 하염없는 연민으로 3년의 시간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동족상잔의 비극에 대한 극복 없이 한반도에 평화의 길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뚜렷이 알고 있다.

우리가 사는 한반도는 여전히 아픔으로 얼룩져 있다. 이념으로 갈리고 세대로 나뉘고 지역으로 갈라져 수많은 분열의 시간 속에 있다. 모두를 대안 없는 삶에 매달려 너와 나를 적대시 하며 투쟁의 에를 겪지 않고 있다. 정의도 선도 없는 다름 속에서 우리의 미래는 밝은 하미만 하다.

도법 스님은 우리들의 의식과 존재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고 한다.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를 삶에 고통과 당겨어 붙여주는 것은 세계와 존재의 본질에 대한 진정한 이해의 결여 때문이라고 한다. 존재와 전체와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고통과 대립이 해소된 날들이 우리의 미래로 자리할 것이라고 말한다.

국제 수준의 타로(TAROT) 카드 교육 실시

1. 타로카드 교육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타로(TAROT)카드를 국제 수준에 맞게 배우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용양에 주역이 있는 것 처럼 서양에는 타로카드가 있어 왔습니다. 타로카드는 일상생활에서 이런 문제들을 풀지는 데 쓰입니다.

1. 연애와 결혼 2. 인간관계 3. 금전문제 4. 사업 5. 일 자리 찾기
이밖에도 인생의 은갖 과정에 선택, 결단, 결정을 내리는 데도 쓰이며 연구 개발, 사업기획, 정책입안, 문제해결의 길을 찾는 데도 쓰입니다. 그리고 그저 카드를 보면서 상상을 하거나 명도 정신수련, 마음수련, 정신위생, 운치훈련, 상상력훈련에 도움이 되는 도구입니다. 우리 국제타로학원에서는 지난 1년여에 걸친 준비를 완료하고 국제수준에 맞는 타로카드의 단계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로카드도 온라인 마르세유 타로카드를 현대에 복원한 키오왕만 마르세유 타로카드를 한국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카오왕만 마르세유 타로카드 1세트 35,000원
- 교육일시
 - 1차 제1단계 : 03년 11월 8일(토) ~ 9일(일) 선착순 24명
 - 제1단계 : 03년 12월 6일(토) ~ 7일(일)
 - 제2단계 : 03년 12월 27일(토) ~ 28일(일)
 - 제3단계 : 04년 1월 24일(토) ~ 25일(일)
- 2차 제1단계 : 04년 1월 3일(토) ~ 4일(일)
- 제2단계 : 04년 1월 31일(토) ~ 2월 1일(일)
- 제3단계 : 04년 2월 21일(토) ~ 22일(일)

- 참가비 : 각단계 12만원 균일 시간 : 오전 10시 ~ 오후 5시

2. 레이키(Reiki) 교육
레이키에서는 10시간이면 누구나 힐링이 가능하게 될 수 있습니다. 레이키에는 어떤 명트리는 특유의 비법이 있기 때문에 바로 힐링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힐링은 우리의 마음을 단단으로 만들어 드리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우스이 레이키 : 교육기간 2~3일 전수비 50만원
- 카부나 레이키 : 교육기간 1일 전수비 30만원

국제타로학원 (한글도메인)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박희준)
인터넷 www.Reiki.co.kr
◆ 전화 : 021720-5682, 720-5719 핸드폰 019-392-2557
◆ 주소 : 서울시 중로구 신문로 2가 89-27 피어선빌딩809호

당신도 설법을 잘할 수 있습니다

단시일내에 대법사가 될 수 있는 길
부처님의 오종설법, 비유법, 대기설법 <실기훈련 - 설법자료제공>
성공적인 법회운영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자료의 재구성능력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과목

- 발성훈련, 표정연기, 설득, 상담기법
- 음성, 태도, 修辭, 원고작성법, 회의진행법 등

연수안내

- ▶ 기 간 : 2개월 과정 ※ 수시 접수
- ▶ 장 의 : 오요일 - 매주 (수) 오후 1시 ~ 3시
목요일 - 매주 (목) 오후 7시 ~ 9시
- ▶ 지도교수 : 김철을 박사
- ▶ 장 소 : 본 연구원

※ 출장 또는 개인지도 가능합니다 ※

◆ 문의 및 신청 ◆
☎ 02)747-1567(02)737-1567
H·P 011)248-1567

韓國說法研修院

서울 중로구 중로 3가 20(영흥 B/D 4F)

지장보살인력입은 달마도 보급에 나선 지명스님

달마도의 신비스러운 원력 함께 나누는 삶 서원

세백 맑은 공기가 창을 넘어오는 시간이다. 달마도에 의해 명상에 빠진 지명스님은 날이면 날마다 웃음과 기쁨을 느끼고 고맙다. 지난 몇년 여생을 바탕으로 달마도 보급에 나서고 있다. 달마도는 원력이 넘쳐나고 있다. 다시 타고 다닐수록 행하러 갈수록 수없이 반복하며 달마도를 1년에 천 지하원을 4바퀴를 돌며 보급을 진행하고 있다. 달마도를 보급하는 것은 불교의 전통을 지키고 불교의 지단 마음을 열어주는 포교를 해왔다.

지명스님 출가 후 중로 지장보살님을 모시고 법원에 법원을 거름하며 중진 주시며 "이 달마도를 마음에 담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려 보급하면 이 달마도가 있는 곳마다 영험스러운 일이 있을 것이다."는 말씀을 남기고 출연해 사귀었다.

"그동안 많은 인연들이 저의 달마도를 소장하게 되었지요." 서울시에만 무료로 일반 어령의 달마도를 보급해 그들이 달마도의 신비스러운 기운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지난 경계위기 때에는 인상의 00여파트를 지어 놓고 법원을 위해 부도진전에 이른 수원이 어느 건실하는 분양사무실에 스님이 직접 그린 달마도를 걸어 놓고 법원을 시작했는데 천대개 계약은 체결하여 입주를 마쳤다고 한다. 지금은 구름과 구름이 법원을 마치고 계속 불사중이며 중대에서 체계적인 그림공부를 하면서 날마다 달마도를 그리며 지장보살님께 "이 땅의 병들과 괴로워하는 모든 중생들이 모두 부처님의 방법으로 치유되고 마음의 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생들에게 달마선사의 원력이 아름답고 괴고고 괴고고 괴고고 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날마다, 날마다 사귀고 있다."

달마도 보급

문의 전화 021857-4576, 017)430-5008
보 현 사 지명스님 협장

신비하게 소원을 이루는 기도처 米岩寺 '쌀바위'

백계 칠류왕 때 부여 쌀바위와 자연암반수인 神泉水의 영험이 자자하여, 자식이 없는 사람은 자식을 얻었고, 병자가 쾌차하게 되고, 수험생은 시험에 합격하고, 사업가는 사업이 번창하는 등 갖가지 소원을 이루어 주었다.

그리하여 인근 주민들은 지금도 소원을 이루게 해준 미암사 쌀바위를 부처바위, 미륵바위 혹은 촛대 바위, 남근 석 바위 라고하며, 신비한 영험이 널리 알려져서 생로병사의 운명을 바꾸고자 전국에서 성지순례자가 많이 참배하여 소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생로병사의 운명을 상담해 드립니다.

- 지방문화재 제371호 -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21-5
전화 041)832-1188~9
쌀바위 미암사 주지 석만청 합장